

컨테이너가 '꿈꾸는 공간'으로 변화

지난 한 해 창업시장은 녹록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누적되면서 50대 이상 창업자가 늘어나고 청년창업이 활발해지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창조경제의 열풍을 타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커졌다.

현재는 유사 이래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한 시대다.

정부 지원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주변에 '창업하고 싶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한마디로 창업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졌지만 자영업 창업시장에까지 스며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불황에도 부상하는 트렌드를 캐치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함께 작은 규모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작은 창

이쁜 창업·작은 창업, 컨테이너에 색을 입히다

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전복형 창업문화 플랫폼 창업드림스퀘어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건축물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과 창업공간이 공존하는 멀티플렉스 복합문화 공간이다.

창업드림스퀘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열기로 북적이는 혁신적인 공간이다.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돕고, 신진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를 열면서 사업 가능성을 찾고 사회적 기업이나 젊은 청년 벤처들이 일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공간공간의

주인들 또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공유가치의 중요

성을 일깨워 같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지는 의도를 갖고 있다.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함께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작은 창업인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정착에 도움을 주고, 한옥마을로 집중화된 관광자원을 분산해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문화복합도시, 전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0여개의 컬러 컨테이너 복합체와 1,000여평의 시설공간이 필요한 창업드림스퀘어는 현재 설치 부지를 전주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고, 부지가

선정되면 창업 테마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 복합공간 조성의 기본계획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수립하고, 4050행복창업교육, 작은창업 활성화 프로젝트인 청년 창자가 육성사업인 기초창업교육과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전북경제특성상진흥원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역할은 창업전담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을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정신으로 아이디어를 비밀리에 꽃피우던 조그만 창고에서 시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창업드림스퀘어가 '할 수 있다'는 열정을 지닌 도내 젊은 창업가를 만드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창업 성공의 디딤돌 공간으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광역 BIS가 뜬다

(버스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연계 도내 전역 구축 예정

전북도는 국토부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공모사업에 선정된 익산,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지역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 시·군 지역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버스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은 인접 지역간 국지적, 수동적으로 생성·관리되고 있는 버스운행정보를 광역적, 자동적으로 생성·관리할 수 있는 광역 버스 정보 연계체계로 지금까지는 20만 이상 도시중심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버스의 불규칙한 배차간격에 정시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에 버스노선 및 운행정보, 도착예정 정보를 제공하여 버스이용시민에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증진에 목적이 있다. /인재용 기자

익산,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기존의 고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안전공단의 중앙서버를 활용,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대도시에서 추진했던 자체 서버방식보다 약 50% 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다.

이러한 중앙서버 및 위탁관리방식은 그동안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제외됐던 시군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전북도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건의함에 따라 2015년부터 채택된 사례이다.

또한, 중소도시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 및 BIS 서비스 형성성 논란 해소뿐 아니라 자동승객계수장치를 도입할 계획으로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익산,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국비 8억원 포함, 총 22억원을 투자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의 날개' 이스타항공 창립 10주년 인재 채용

일반직·운항·객실인턴승무원 80여명 공채

전북 대표기업 이스타항공이 정유년 새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상반기 일반직 및 운항승무원, 객실인턴승무원 공채 채용을 진행해 총 80여명의 신입/경력 직원을 채용한다.

이번 공개채용에는 / 신입부기장 24명(8명x3회 / 2017년 총 모집인원), 인턴객실승무원 27명, 정비.운송.일반직 30여명 등 전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 11월 누적탑승객 2000만명을 돌파한 이스타항공은 최근 유폴라이 얼라이언스를 통한 글로벌 노선 확대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지역활당제와 잡영첼린지 참여 등을 통해 전북지역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온 이스타항공은 2016년 상반기 객실인턴승무원 채용에는 40%에 해당하는 30여명을 전북출신으로 채용했으며, 지난 2016년 상반기 진행된 일반직 공개 채용에도 12% 이상을 전북출신 인재들로 채용했다.

이번 공개채용 또한 인턴객실승무원과 일부 일반직 모집에도 지역활당제를 통한 채용 진행을 진행하며, 전북지역 인턴객실승무원 1,2차 면접을 전주에서도 시행하여 전북지역 응시자들의 면접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이스타항공은 '제2의 창업'을 통한 글로벌항공사로의 도약 원년 해'라는 경영목표를 세우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만족경영을 확대해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공개채용 입사지원은 신입부기장(~2월19일), 인턴객실승무원(~2월12일), 일반직(~2월5일)으로 구분에 서류모집을 진행하며, 각 부문별 면접 및 실기평가 등을 통해 최종 입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채용 홈페이지(recruit.istarjet.com)에서 확인 및 지원하면 된다.

채용에 최종 합격한 인원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사하여 객실 인턴승무원은 12주간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되며, 일반직은 각 업무에 따른 부문별 교육 후



전북 대표기업 이스타항공이 정유년 새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실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최상의 안전운항과 글로벌항공사로의 도약을 위해 젊고 인재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전북에 분사를 둔 이스타항공은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17대의 항공기를 통해 10개국 25개 도시에서 국내선 5곳, 국제선 24곳 총29곳의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2대의 항공기 신규도입을 통해 필리핀, 괌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얼라이언스와 코드쉐어 등을 통해 기존 운항하던 노선의 확대 및 운항 횟수 증대 등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LX, '공간정보 뉴스레터' 창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국내의 공간정보 산업동향을 발 빠르게 전한다.

LX는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정보산업 소식과 해외 선진 공간정보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 뉴스레터'를 창간한다. /인재용 기자

이달부터 이 메일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레터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발행되며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e.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명식 사장은 발간 축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공간정보"라며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최고의 전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혁신형 연구소 육성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전북도 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전북특구 기술혁신형 연구소 기업 설립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전북특구 내 기업에 성장단계별 지원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 육성해 전북특구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 기업 지정 확대를 위해 기술매칭, 수요기업 연계, 사업성진단, 비즈니스모델(BM)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구 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술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게 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를 위해 전북특구 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캠코, 49건 공매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북 소재 재산 약 66억원 규모, 총 49건을 은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근린생활 시설과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병원, 전주시 효자동 1가 소재 아파트 등이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